

# 《殷虛文字丙編》005~011譯註

김혁\*

## <목 차>

1. 서론
2. 《殷虛文字丙編》005~011譯註
  - 2.1 《丙編》005
  - 2.2 《丙編》006
  - 2.3 《丙編》007
  - 2.4 《丙編》008
  - 2.5 《丙編》009
  - 2.6 《丙編》010
  - 2.7 《丙編》011
3. 결론

## 1. 서론

《殷虛文字丙編》(이하 《丙編》으로 약칭)005~011에 刻寫된 卜辭는 전쟁, 제사, 농작의 수확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모두 거북의 腹甲으로 《丙編》005/006, 《丙編》008/009, 《丙編》010/011은 각각 동일 腹甲의 正面과 反面에 대한 拓本이며, 《丙編》007은 腹甲의 正面에 대한 拓本이다. 甲骨文 類組學의 분류체계로 보면 《丙編》005/006은 賓組一類에 속하고, 《丙編》007~011은 賓組過渡二類에 속한다.<sup>1)</sup> 본고는 필자의 역주 《丙編》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본 논문에서 甲骨文 類組를 구분하는 기준은 王卜辭의 경우 黃天樹의 분법을, 賓組卜辭의 세분화는 奇川龍의 분법을 따른다.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 北京:

001~004의 후속 번역작업으로서<sup>2)</sup>, 《丙編》005~011, 즉 총 일곱 편의 완전한 甲骨에 기록된 卜辭들을 譯註하고자 한다.

## 2. 《殷虛文字丙編》005~011譯註

### 2.1 《丙編》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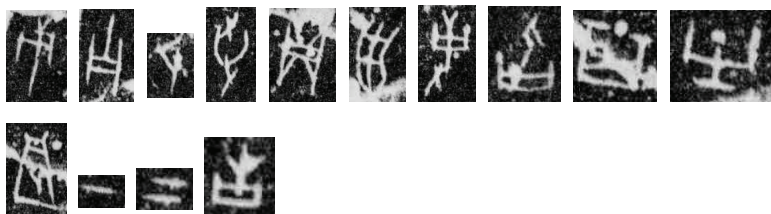
#### 【圖版情報】

《合》5637正. 賓組一類

#### 【圖版字形·釋文】



庚子卜, 爭鼎(貞): 西史(使) [1] 旨 [2] 亡囧(憂) [3] 出(由=堪)  
[4] . 一.



庚子卜, 爭鼎(貞): 西史(使)旨其 [5] 出(有)囧(憂). 一. 二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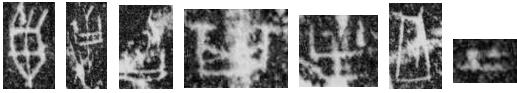
www.kci.go.kr

科學出版社, 2007. 奇川龍, 《賓組甲骨文分類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2) 김혁, <《殷虛文字丙編》001~004譯註>, 《中國學論叢》, 2016, 197-222쪽.



鼎(貞): 西史(使)旨亡困(憂), 由(由=堪). 二.



西史(使)旨其出(有)困(憂).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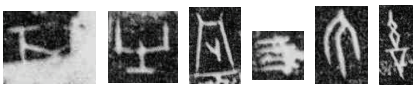
鼎(貞): 旨亡困(憂). 三. 二告.




旨其出(有)困(憂). 三.




旨亡困(憂). 四.



其出(有)困(憂). 四. 不  [6] .



旨亡囧(憂). 五. 不 .



其中(有)囧(憂). 五.

### 【註釋】

[1] 西史는 서쪽의 史로서, 史는 使로 읽는다. 陳夢家是 卜辭에 등장하는 東史, 西史, 南史, 北史 등이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파견된 使者로 보았다. 《禮記·王制》에 “天子가 大夫를 파견하여 三監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方伯에 속하는 제후국들을 감찰하며, 각 나라마다 세 사람을 보낸다(天子使其大夫爲三監, 監於方伯之國, 國三人).”는 기록을 인용하여 方伯之國에 파견한 大夫가 곧 ‘使’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비록 《王制》가 후세의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卜辭에 나오는 東史, 西史, 北史, 我史 등은 대체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점치기를: 北쪽에 파견된 使者가 羌족을 포획할 것이다(貞: 在北史有獲羌).”, “점치기를: 北쪽에 파견된 使者가 羌족을 포획하지 못할 것이다(貞: 在北史亡其獲羌).”(《合》914正), “癸亥일에 冓열을 내어 殼이 점치기를: 우리의 使者가 缶를 멸할 것이다(癸亥卜, 殼貞: 我史<sup>𠄎</sup>戔(翦)缶).”, “점치기를 우리의 使者가 缶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貞: 我史母其<sup>𠄎</sup>戔(翦)缶).”(《合》6834正) 등이 있다.

[2] 旨는 武丁時期에 출현하는 인물로, 주로 전쟁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3] 囧(憂)는 郭沫若이 ‘𠄎’로 考釋하고 ‘禍’로 읽은 이래 대부분 갑골학자들이 郭沫若를 따라 ‘禍’로 해석하였었다.<sup>4)</sup> 훗날 裘錫圭가 肩胛骨 위에 卜兆가 새겨진 모양을 본뜬 象形字로 보고 ‘兆’의 初文으로 考釋하였다. ‘兆’는 定母宵部이고 ‘憂’는 影母幽部인데, 宵部和 幽部の 관계로 볼 때 韻母가 아주 가깝다. 定

3)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 520-521쪽.

4)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 2158-2159쪽.

母와 影母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서로 諧聲이 되는 情況이 간혹 보이는데 定母인 𠄎이 影母인 𠄎을 聲符로 하는 예가 있어서 𠄎을 ‘憂’로 읽을 수 있다. 본고는 裘錫圭의 주장에 따라 𠄎을 ‘憂’로 읽는다.<sup>5)</sup>

[4] 𠄎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于省吾는 ‘𠄎’로 考釋하고 ‘載’로 읽었다. ‘載’는 ‘行’의 의미가 있으므로 卜辭에 종종 등장하는 ‘𠄎王事’를 ‘왕의 일을 행하다’로 해석하였다.<sup>6)</sup> 楊樹達은 ‘𠄎’으로 考釋하고 ‘協’으로 읽었다. ‘協’은 ‘협조하다’는 뜻이므로 ‘𠄎王事’를 ‘왕의 일에 협력하다’로 해석하였다.<sup>7)</sup> 陳劍은 ‘由’로 考釋하고 ‘堦’으로 읽었다. ‘堦’은 ‘능히 감당하다’는 뜻이므로 ‘𠄎王事’를 ‘왕의 일을 감당하다’로 해석하였다. 본고는 陳劍의 주장을 따라 ‘堦’으로 읽는다.<sup>8)</sup>

[5] 전형적인 正反對貞에서 한 쪽은 其자가 있고, 다른 한 쪽은 其자가 없는 경우, 其자가 있는 쪽이 占卜者가 원하지 않는 情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司禮義(Paul L-M. Serruys)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으로 보통 甲骨學界에서는 이를 ‘司禮義의 其字規則’이라 부른다. 때로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즉 占卜者가 원하는 결과 쪽에 其자가 있는 甲骨卜辭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沈培는 ‘其’자 자체에 불확정적인 의미의 語氣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보통 占卜者는 자신에게 좋은 것에 대하여 ‘肯定과 肯定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원하는 情況에 ‘其’자가 없고, 원치 않는 情況에 ‘其’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보다 더욱 복잡한 情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의 결과가 이미 進行되어 좋고 나쁨이 거의 예측되는 情況에서, 만일 나쁜 情況이 일어날 것이라고 豫想된다면, ‘其’자가 反貞이 아닌 正貞에, 즉 반대로 占卜者의 입장에서 원하는 쪽에 出現하는 것으

5) 裘錫圭, <說“𠄎”>,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77쪽. 裘錫圭, <從殷墟卜辭的“王占曰”說到上古漢語的宵談對轉>,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485-494쪽.

6) 于省吾, <釋𠄎>,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99, 69-71쪽.

7) 楊樹達, <𠄎王事>, 《卜辭瑣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3쪽.

8) 陳劍, <釋“𠄎”>,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第三輯,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0, 1-89쪽.

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其’는 占卜者가 불확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虛辭로, 현대중국어 也許·可能(아마도)에 해당한다.<sup>9)</sup>

[6] 不<sub>1</sub>는 𠄎<sub>1</sub>의 생략형인데 주로 賓組卜辭에만 출현하는 술어이다. 胡光燁는 𠄎<sub>1</sub>를 ‘不<sub>1</sub>’로 考釋하고 ‘不<sub>1</sub>’로 읽었는데, 확정할 수 있는 설은 아니다.<sup>10)</sup> 𠄎<sub>1</sub>자는 ‘不<sub>1</sub>’의 初文으로 考釋되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𠄎<sub>1</sub>의 讀法이 불명확하다.

### 【翻譯】

(1) 庚子일에 筮를 내어 爭이 점치기를: 西使인 旨에게 우환이 없고, 그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sup>11)</sup>

庚子일에 筮를 내어 爭이 점치기를: 西使인 旨에게 아마도 우환이 있을 것이다.

(2) 점치기를: 西使인 旨에게 우환이 없고, 그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西使인 旨에게 아마도 우환이 있을 것이다.

(3) 점치기를: 旨에게 우환이 없을 것이다.

旨에게 아마도 우환이 있을 것이다.

(4) 旨에게 우환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우환이 있을 것이다.

9) 沈培, <殷墟卜辭正反對貞的語用學考察>, 《漢語史研究: 紀念李方桂先生百歲冥誕論文集》, 語文出版社, 2005.

10) 胡光燁, 《甲骨文例》, 國立中山大學語言歷史學研究所, 1928, 26.

11) ‘命辭’를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하며 본고의 모든 ‘命辭’에는 마침표를 찍고, 번역은 평서문으로 한다. 甲骨文‘命辭’의 성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裘錫圭의 논문을 참고할 것. 裘錫圭,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09-3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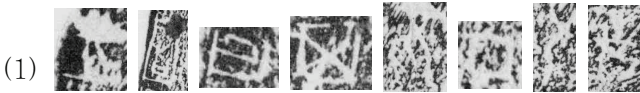
- (5) 旨에게 우환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우환이 있을 것이다.

## 2.2 《丙編》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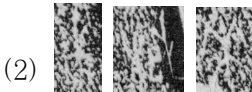
### 【圖版情報】

《合》5637反. 賓組一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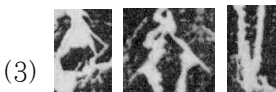
### 【圖版字形·釋文】



王固(占)曰: 其佳(唯)丁引𠄎(翦) [1] .



婦(婦) 𠄎(替) [2] 來(賚) [3] .



易入廿(二十).

### 【註釋】

[1] 引𠄎(翦)의 引은 보통 卜辭에서 引吉과 같은 兆辭에 쓰이는 수식어인데, '長久'를 뜻한다. 여기서는 '멸망시키다', '승리하다'는 뜻의 동사 𠄎(翦)을 수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𠄎은 창(戈)으로 초목을 베는 형상을 본

뜯 글자로 ‘翦’으로 읽으며 ‘翦除’, ‘翦滅’의 뜻을 나타낸다.<sup>12)</sup> 아마도 적을 翦滅하는 과정의 시간이 길어서 引<sup>𠄎</sup>(翦)이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사 앞에 引이 수식어로 등장하는 예는 “乙巳일에 冢을 내고: 祖戊에게 豕을 드리고 이어서 奏祭를 오랫동안 드려라(乙巳卜: 豕祖戊, 引奏).”(《合》19875)가 있다. 引<sup>𠄎</sup>(翦)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승리의 상황이 매우 긍정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본 占辭를 통해 冢가 왕의 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여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을 을 알 수 있다.

[2] 婦<sup>𠄎</sup>는 “婦<sup>𠄎</sup>가 龜甲 11屯을 공납했다(婦<sup>𠄎</sup>示十屯有一).”(《合》17525, 《合》17526)에 출현하는 婦<sup>𠄎</sup>와 동일인물이다. 甲骨의 記事刻辭에 ‘婦某示’, ‘婦某來’와 같은 문례가 자주 보이는데, 모두 婦某가 공납 또는 進獻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sup>13)</sup>

[3] 來는 공납하다는 뜻인데, 이에 대하여 白川靜은 賚로 읽을 것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白川靜의 견해에 따른다.<sup>14)</sup>

### 【翻譯】

- (1) 왕이 점괘를 보고 말하길: 丁일에 장구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
- (2) 婦<sup>𠄎</sup>가 공납했다.
- (3) 易이 20개의 龜甲을 공납했다.

12) “𠄎을 ‘翦’으로 읽는 해석은 陳劍이 吳振武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臺灣師範大學國文系, 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編, <“𠄎”字的形音義——爲紀念殷墟甲骨文發現一百周年而作甲骨文語法學>, 《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1998, 287-3004쪽. 吳振武, <合33208號卜辭的文字學解釋>, 《史學集刊》, 2002-1期, 20-23쪽. 陳劍, <甲骨文“𠄎”字補釋>, 《甲骨文文考釋論集》, 北京: 線裝書局, 2007, 99-106쪽.

13) 方稚松, <殷墟甲骨文五種記事刻辭研究>,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26쪽.

14) 白川靜, <胡厚宣氏의 商史研究>, 《立命館文學》第102103號: 方稚松, <殷墟甲骨文五種記事刻辭研究>,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110쪽에서 재인용.

2.3 《丙編》007

【圖版情報】

《合》466. 賓組過渡二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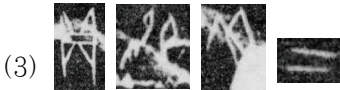
【圖版字形·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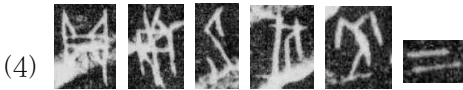
丙辰卜, 古 [1] 鼎(貞): 其改 [2] 羌.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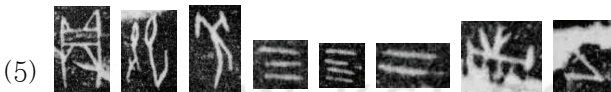
鼎(貞): 于庚申 [3] 伐 [4] 羌 [5] . 一.



鼎(貞): 庚申伐羌. 二.



鼎(貞): 庚申伐羌.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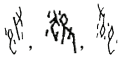
鼎(貞): 改(槌)羌. 三. 四. 二告. 五.



鼎(貞): 庚申伐羌. 三. 四. 二告. 五.

### 【註釋】

[1] 古는 방패(中, 申)에 區別符號인 口를 더하여 만들어진 글자로, 堅固함을 뜻하는 固의 初文이다. 유사한 예로 弘(弘/弘) 역시 활에 區別符號인 口를 더하여 ‘강하다’, ‘크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었고, 후대에 본래 쌀벌레(米蟲)를 의미하는 強자를 빌려 ‘강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기서 古는 貞人名으로 쓰였다.<sup>15)</sup>


[2] 𠄎는 제사에 쓰일 희생물을 처리하는 방식, 즉 用牲法을 나타낸다. 于省吾는 《說文解字》에 수록된 𠄎(𠄎)자를 근거로 𠄎를 脛로 읽어 裂(찢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考釋하였다. “𠄎는 펼치다는 뜻이다. 의미부호인 支과 소리부호인 也로 구성된 形聲字이다. 讀音이 施와 동일하다.(𠄎, 敷也. 從支也聲. 讀與施同).”<sup>16)</sup> 그러나 甲骨文 𠄎자의 字形을 보면,  등으로 서사하여 ‘찢는’ 형상보다는 ‘몽둥이로 때리는 모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槌(몽둥이로 때리다)로 읽는 견해가 있으나, 확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字形에 근거하여 ‘몽둥이로 치다’는 의미로 번역한다.

[3] ‘于庚申’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위 ‘𠄎羌’을 점치는 卜辭와 對貞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엄밀히 문장구조를 분석할 때, 같은 사건을 두고 ‘伐’의 방식을 사용할지 𠄎의 방식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庚申일에 드리는 제사를 두고 점치는 卜辭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裘錫圭, <甲骨文文字考釋(續)>,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188쪽.

16) 于省吾, 《甲骨文文字釋林·釋𠄎》, 北京: 中華書局, 1999, 161-167쪽.

[4] 伐은 사람의 목을 창으로 베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卜辭에서 征伐을 뜻하기도 하고, 희생물을 처리하는 用牲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羌族의 목을 베어 제사희생으로 쓰는 用牲法으로 사용되었다.

[5] 羌의 字形 은 사람의 손이 뒤로 향하고 있어서 포박 당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보통 𠄎으로 서사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翻譯】

- (1) 丙辰일에 尙열을 내고 古가 疋치기를: 羌族을 몽둥이로 쳐 희생물로 쓴다.
- (2) 疋치기를: 庚申일에 羌族의 목을 베어 희생물로 쓴다.
- (3) 疋치기를: 羌族을 몽둥이로 쳐 희생물로 쓴다.
- (4) 疋치기를: 庚申일에 羌族의 목을 베어 희생물로 쓴다.
- (5) 疋치기를: 羌族을 몽둥이로 쳐 희생물로 쓴다.
- (6) 疋치기를: 庚申일에 羌族의 목을 베어 희생물로 쓴다.

2.4 《丙編》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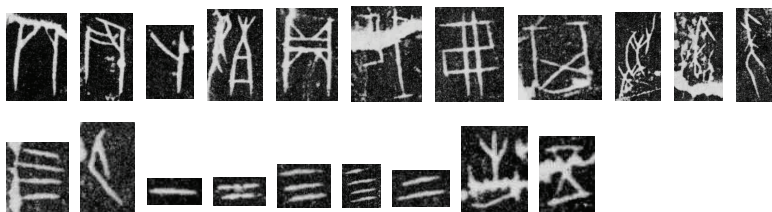
【圖版情報】

《合》9950正. 賓組過渡二類.

## 【圖版字形·釋文】



丙辰卜，穀鼎(貞)：我 [1] 受黍 [2] 年。一。二。三。四。五。



丙辰卜，穀鼎(貞)：我弗其受黍年。四月。一。二。三。四。二告。五。

## 【註釋】

[1] 我是 甲骨文에서 보통 복수 1인칭 대명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뜻한다.<sup>17)</sup>

[2] 黍는 농작물의 일종으로 商王이 직접 재배에 참여했을 정도로 중시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戊寅일에 균열을 내고 賓이 점치기를: 王은 가서 衆人들을 데리고 囿지역에서 기장을 심어라(戊寅卜, 賓貞: 王往以衆黍于囿).”(《合》10)과 같은 문례가 있다. 또 기장은 甲骨文辭에 ‘登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곡물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登제사에 기장을 사용하라(登黍).”(《合》235正), “丙子일에 균열을 내어: 宗에서 登제사를 드리는데 기장을 사용하라(丙子卜, 其登黍于宗).”(《合》30306), “甲午일에 균열을 내어: 高祖乙에게 登제사를 드리는데 기장을 사용하라(甲午卜, 登黍于高祖乙).”(《合》32459) 등의 문례가 있다.<sup>18)</sup>

17)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23-24쪽.

18) 裘錫圭, <甲骨文中所見의 商代 農業>,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237쪽.

【翻譯】

(1) 丙辰일에 균열을 내어 𤔁이 점치기를: 우리가 기장(黍)의 좋은 수확을 받을 것이다.

丙辰일에 균열을 내어 𤔁이 점치기를: 우리가 아마도 기장(黍)의 좋은 수확을 받지 못할 것이다.

2.5 《丙編》009

【圖版情報】

《合》9950反. 賓組過渡二類.

【圖版字形·釋文】



王固(占)曰: 吉, 受出(有) [1] 年.

【註釋】

[1] 出(有)의 품사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動詞 '有'에서 발전한 助詞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甲骨卜辭에 “乙酉일에 균열을 내어: 犬官이 와서 사슴이 있다고 고하였다. 왕은 쫓아가면……(乙酉卜, 犬來告: 又(有) 鹿, 王往逐……)”(《屯》997), “庚申일에 균열을 내어: 犬官이 사슴이 있다고 고하였다. 왕은 연합하여 사냥하면 포획할 수 있을 것이다(庚申卜, 犬[告]曰: 又(有) 鹿, 王比(比), 擒).”(《屯》2290) 등과 같은 문례가 있는데, 여기서의 '有'는 분명 '존재하다'는 동사로 쓰였다. 그런데 또 다른 卜辭인 “王이 滴강을 건너서, 그곳에 있는 사슴을 활로 쏘면 포획할 것이다(王涉滴, 射又(有) 鹿, 擒).”(《合》28339), “……辛일에 사냥을 나가면 사슴을 만날 것이다(……辛洒田, 邁

又(有)鹿.)”(《合》28337正) 등에 나오는 ‘有’는 鹿을 수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有鹿의 有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더해진 것으로서, 강조나 어떤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古代中國語에서 이와 유사한 예로 고유명사 앞에 더해지는 有(有夏, 有殷, 有周, 有虞, 有苗, 有扈 등)와 일반명사 앞에 더해지는 有(有廟, 有民, 有梅, 有昊, 有帝, 有政 등)가 있는데, 甲骨卜辭에 출현하는 受有年, 受有祐, 肩輿有疾, 有鹿의 有와 맥락을 같이하는 품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甲骨卜辭에 출현하는 ‘有’의 성질에 관하여는 보다 많은 자료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sup>19)</sup>

### 【翻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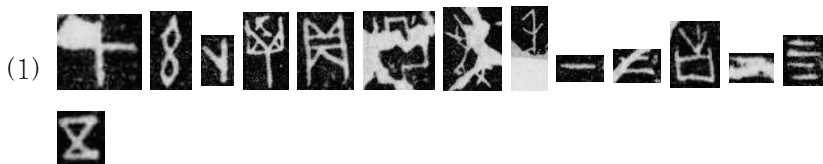
(1) 왕이 점괘를 보고 말하였다. 길하다. 좋은 수확을 받을 것이다.

## 2.6 《丙編》010

### 【圖版情報】

《合》9788正. 賓組過渡二類.

### 【圖版字形·釋文】



甲午卜, 𠄎(禽) [1] 鼎(貞): 亞 [2] 受年. 一 二 告 三 四 五

19) 古代中國語의 助詞 ‘有’에 관하여는 楊伯峻·何樂士의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修訂本), 北京: 語文出版社, 2008, 493-494쪽.



甲午卜, 隹(禽)鼎(貞): 不其受年. 一 二 三 告 四 六

【註釋】

[1] 隹은 禽의 繁體이다.

[2] 亞는 卜辭에서 ‘관직명’, ‘종묘’, ‘지명’ 등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명’으로 쓰였다.

【翻譯】

(1) 甲午일에 尙열을 내어 禽이 점치기를: 亞지역이 좋은 수확을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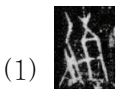
甲午일에 尙열을 내어 禽이 점치기를: 아마도 좋은 수확을 받지 못할 것이다.

2.7 《丙編》011

【圖版情報】

《合》9788反. 賓組過渡二類.

【圖版字形·釋文】



(1)

殷 [1] .

www.kci.go.kr

## 【註釋】

[1] 𣪠은 記事刻辭로서 貞卜에 대하여 貞人이 책임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일종의 사인(簽署)이다.<sup>20)</sup>

## 【翻譯】

(1) 𣪠.

## 3. 결론

《丙編》005~011의 卜辭는 전쟁, 제사, 농경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丙編》005에서는 서쪽에 파견된 旨가 우환 없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안을 점친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丙編》005의 反面인 《丙編》006에 왕이 점괘를 보고 전쟁의 승리를 예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旨라는 인물은 서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丙編》007은 羌族을 희생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몽둥이로 쳐서 살생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날(庚申일)을 잡아서 목을 베어 살생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을 점친 내용으로 되어있다. 《丙編》007을 통하여 商代에 제사 희생물을 살생하는 방식도 중요한 결정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丙編》008은 상나라의 기장농사에 있어서 좋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안을 점친 卜辭로 反面인 《丙編》009에서 왕은 점괘를 본 후, 결과가 길하여 좋은 수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丙編》010은 亞 지역의 농사가 좋은 수확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사안을 점친 卜辭이다.

20) 記事刻辭에 대한 연구는 方稚松의 연구를 참고할 것. 方稚松, 《殷墟甲骨文五種記事刻辭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본고는 《丙編》005~011에 대한 翻譯과 註解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甲骨文 및 殷商史를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본 譯註가 商代의 기초사료인 甲骨文을 해독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 < 參考文獻 >

- 郭沫若,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78.
- 裘錫圭, <說“𠄎”>,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從殷墟卜辭的“王占曰”說到上古漢語的宵談對轉>,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甲骨文文字考釋(續)>,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農業>,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奇川龍, 《賓組甲骨文分類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臺灣師範大學國文系, 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編, <“𠄎”字的形音義——爲紀念殷墟甲骨文發現一百周年而作甲骨文語法學>, 《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1998.
- 方稚松, 《殷墟甲骨文五種記事刻辭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沈培,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 沈培, <殷墟卜辭正反對貞的語用學考察>, 《漢語史研究: 紀念李方桂先生百歲冥誕論文集》, 語文出版社, 2005.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修訂本), 北京: 語文出版社, 2008.
- 楊樹達, <出王事>, 《卜辭瑣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吳振武, <合33208號卜辭的文字學解釋>, 《史學集刊》, 2002-1期.
- 于省吾, <釋繻>, 《甲骨文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99.
- 于省吾, <釋攷>, 《甲骨文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99.
- 于省吾 主編, 《甲骨文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
- 劉釗, <卜辭所見殷代的軍事活動>, 《古文字研究》第16輯, 北京: 中華書局, 1989.
- 張秉權, 《殷虛文字丙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57.

-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 張惟捷, 《殷墟YH127坑賓組甲骨新研》,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13.
-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
- 陳劍, <甲骨文“𠄎”字補釋>, 《甲骨文文考釋論集》, 北京: 線裝書局, 2007.
- 陳劍, <釋“出”>,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第三輯,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0.
- 胡光燾, 《甲骨文例》, 國立中山大學語言歷史學研究所, 1928.
-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 北京: 科學出版社, 2007.

### < Abstract >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Fascicle Three of Inscriptions from the Yin Ruins(《殷虛文字丙編》) 005-011

Kim, Hyeok

In this thesis, by witnessing and examining real objects, 005-011 of Fascicle Three of Inscriptions from the Yin Ruins(《殷虛文字丙編》), with the Binzubuci (賓組卜辭) of YH127 in Yin Ruins, are arranged as completely as possible for the use of scholars to study and review.

Fascicle Three(《丙編》)005 is that the Zhi(旨) from the west can expect the king's work without worries. Fascicle Three(《丙編》)006 on the back of the Fascicle Three(《丙編》)005 indicates that the king had predicted the victory of the war by seeing a divinatory sign, so Zhi(旨) would have been involved in a war in the west.

Fascicle Three(《丙編》)007 is a ritual in which people use Qiang(羌) as a sacrifice, whether to beat them with a club or cut their throats by catching them on a specific day. The method of killing the sacrifice at the time was also an important decision from Fascicle Three(《丙編》)007.

Fascicle Three(《丙編》)008 is the prediction of whether Shang(商) dynasty

long farming will turn out to be a good harvest. On the back of the Fascicle Three(《丙編》)009, the king saw a sign and concluded that the result would be a good harvest. Ten was the prediction of whether or not the farming in the 亞 region would perform a good harvest.

Key words: Fascicle Three of Inscriptions from the Yin Ruins(《殷虛文字丙編》), Binzubuci(賓組卜辭), Zhi(旨), War, Qiang(羌), Sacrifice, Ritual, Ya(亞), Harves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26.	2018. 3. 9	2018. 3. 11.	2018. 3. 17.	2018. 3. 31.

